

1-18-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마태복음 12:38-41

말씀제목: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죄사함 받았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기 원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이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39-41)

성경은 요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은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욥 2:1-3)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의 몸은 이미 죽어있었으며 그의 혼이 지옥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욥 2:4-7)

요나는 자신의 몸이 죽어 그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왕은 미래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시 16:9-10)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흘 동안 죽으셨을 때 요나처럼 지옥까지 내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이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마 12:40)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기 전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4-15)

예수께서는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이 증인이니라.”(눅 24:46-48)

회개하여 죽음에서 부활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던라.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굶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의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굶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 것도 대지 못하게 하하.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굶은 베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던라.”(욥 3:4-9)

예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41)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옛날 니느웨 사람들 못지 않게 죄악 중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딤후 3:1-5)

아멘! 할렐루야!